

## 녹색교통수단의 확산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정비

광주시 도로과 자전거팀  
2024.1.30.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2024.2.15.

### 광주시,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조성 추진

광주시에 녹색교통인 자전거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자전거마을’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영산강 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주민설계단을 구성하고, 2월에 시범지구 내 자전거 노선 선정과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담아 기본구상(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산구 첨단지구 중심인데, 시는 “이 지역이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연구시설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전형적인 근린주구’ 형태를 띠고 있어 마을 단위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대상지에는 주민 수요 맞춤형 자전거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실천방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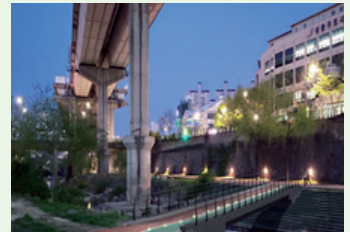
### 서울시, 도시 곳곳과 한강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서울시가 서울 동쪽의 중랑천, 서쪽 청계천, 북쪽 정릉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약 1.7킬로미터의 도심 속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하였다.

먼저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조성되었다. 전용교는 길이 30미터에 폭 5.4미터 규모로, 이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 시 200미터에 달하던 거리를 30미터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 인성을 높여 주는 태양광 LED 표지, LED 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미터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미터 구간은 재포장해 도심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한편 시는 현재 1,336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 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킬로미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완공된 청계천·정릉천 구간 보행·자전거 전용교

출처: 서울시. (2024). 정릉천·청계천에서 한강까지 끊김 없는 라이딩... 서울도심 잇는 자전거도로 개통. 2월 15일 보도자료.